

**마음 열기 :** 자주 사용하는 교회 용어 중에 ‘율법적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인데요. 그렇다면 ‘율법적이다’의 반대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?

**관찰 1)** 바울은 ‘율법을 듣지 못하였습니까?’라며,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‘율법이란 무엇인가’에 대해 명확히 정의 내리려 합니다. 바울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? 또 그 이야기를 어떤 장르로 보고 있습니까?

- 갈 4:22 아브라함에게 ( )이 있으니
- 갈 4:24 이것은 ( )이니

**관찰 2)** 바울은 하갈(여종)과 사라(자유 있는 여자)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활용해, 당시 독자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. 두 여인의 아들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? 또 믿음을 따르는 독자들은 누구의 어디 소속이라고 합니까?

(1) 하갈(여종)

- 갈 4:23 ( )에게서는 ( )를 따라 났고
- 갈 4:24 ...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( )을 낳은 자니 곧 ( )이라

(2) 사라(자유 있는 여자)

- 갈 4:23 ( )에게서는 ( )으로 말미암았느니라
- 갈 4:23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( )이니 곧 ( )라

(3) 독자들

- 갈 4:28 형제들아 너희는 ( )과 같이 ( )라

**나눔 1)** 바울은 독자들이 ‘율법(종)’으로 비유되는 ‘하갈’에게 속한 자들이 아닌, ‘약속(자유인)’으로 비유되는 ‘사라’에게 속한 자들임(우리 어머니)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
오늘날에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된 ‘자유’에 도전하는 ‘율법적’인 것들은 많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또 우리 어떤 태도와 관점으로, ‘종 삼으려는 것들’에게 맞서야 할까요?

**관찰 3)** ‘하갈의 아들’의 존재는 창세기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면, 여전히 ‘종의 자리’에 머무르려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확인하게 만듭니다. 창세기15:1-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‘자손’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, 이에 사라의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?

- 창16:2

**관찰 4)** 이 때문에 (1)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? 또 이에 대해 (2)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였으며, (3)이 모든 불신앙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주십니까?

- (1) 창16:4
- (2) 창16:5-6
- (3) 창17:1

**나눔 2)** 우리는 오늘 관찰을 통해 ‘율법적’이라는 표현을 ‘기다리지 못함’으로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’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기다리지 못함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까? 또 지금 당신은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?